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중간평가, 정치 양극화와 제3당



강원택 편

정치사회 > 한국정치 | 378쪽 | 25,000원 | 2024년 11월 출간

ISBN 979-11-6617-821-4 95340

2024 총선 국면의 이슈와 구도, 그리고 선거 이후의 과제

유권자의 투표에 담긴 ‘평가’와 ‘기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EAI 총선패널조사 결과로 본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전망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속성을 띠었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론을 바꾸는 데 실패하며 참패했고,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회했다. 선거 결과 현행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무소속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고, 제3당으로 꾸준히 의석을 확보하던 정의당은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다. 이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었는지 보여 주는 현상이다.

권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메커니즘이 이번 총선에서 작동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긍정적 양상이지만, 선거를 통해 재확인된 정치적 양극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현실이다. 이 책은 이처럼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여, 그 변화와 특성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학술적 토론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AI의 선거 패널조사, 한국 선거정치 연구의 새로운 지평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주요 선거를 전후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치와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선거정치 연구의 보고(寶庫)로 자리매김한 EAI의 연구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의 지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12인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22대 총선

이 책은 22대 총선을 좌우한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의 대립 구도에서 견제론이 힘을 얻은 배경을 논하는 제1부, 유권자의 성별, 자산, 이념 등 요인이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논하는 제2부, 선거 국면에서 발생한 공천 갈등, 주요 정치인의 행위, 선거 관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 등의 영향을 논하는 제3부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각 당의 이념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압도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존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도권 의 중도 유권자가 선거에 임박하여 지지를 철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저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안정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 기간 불거진 가족 및 측근 논란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며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한다.

2장에서 유재성 계명대 교수는 각 지역에서 여야 지지자의 2022년 선거 대비 투표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당의 패배 요인을 분석한다. 2022년 윤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 중 약 20%가 2년 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어 기권한 반면, 같은 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90%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투표함으로써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저자는 소선거구제에서 격전 지역구의 근소한 야당 승리가 누적되며 여당의 대패로 귀결됐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대립한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에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주목하여 선거 결과를 되짚어 본다. 패널조사 응답자 중 약 15%에 해당하는 상충적 유권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자는 이러한 투표행태를 거대 정당에 대한 불만이 적극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해석하며, 양당은 강성 지지층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다수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상충적 유권자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장에서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주목하여, 한국의 대통령제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제약의 특성을 제시한다. 유권자의 대통령 선호도가 여당 선호도보다 더 높을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중간선거의 회고적 투표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결론 지으면서, 이들의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장에서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현대적 성차(modern gender gap)”가 2024년 총선에서 20대 유권자에게 발견되었으나, 젠더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차이는 2년 전 대선 때와 달리 유의미한 투표 행태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단, 20대 여성들은 보수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강한 비호감을 보였고, 그 대안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자는 20대 대선 이후 지속된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가 심리적 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치 지형의 형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전망한다.

6장에서 김수인 서울대 박사 과정생은 투표 선택의 변수로서 부동산에 주목하여, 자산 규모가 클수록 보수정당 투표 확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자산투표’ 행태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서 확인되었다고 밝힌다. 저자는 자산투표 현상이 보수정당에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과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 설정과 중도층 수도권 유권자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7장에서 정연경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은 22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을 밝힌다. 정치 관심도가 높은 중산층 이상 유권자들이 대통령 국정운영 및 공천 과정 등에서 기인한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과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신당에 투표하였음이 확인된다. 저자는 조국혁신당 투표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일시적 항의로 저항 투표를 한 것과 달리, 개혁신당 투표자들은 양당 지지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저항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8장에서 이한수 아주대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서로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분할투표의 배경과 결과를 탐구한다. 패널조사 응답자 중 약 41%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소정당 지지자는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분할투표를 하는 반면 거대정당 지지자는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관된 투표를 하는 상반된 경향이 관측되었다. 저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거대 정당과 유권자 간 이념적 차이가 클수록 분할투표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유권자가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고려하여 분할투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한다.

9장에서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의 공천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해당 정당에 투표할 확률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양당의 공천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소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절대적 권한을 주는 공천 방식이 민주적 대표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천 기준과 방식을 사전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10장에서 길정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 정당과 대표 정치인(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토대로 한국 정치의 다면적 지형을 분석한다. 양당 지지자 중 다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 정치인을 정당 자체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당에 대한 호감도보다 대표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를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당의 핵심 지지층이 정당을 둘러싼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시스템보다는 인물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11장에서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지역구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현직 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해당 의원 또는 같은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긍정 평가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일체감과는 일정 수준 독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단순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부 심판의 성격만을 갖지 않으며, 대표자의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12장에서 김준석 동국대 교수는 선거 관리에 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의 선거 공정성 인식을 분석한다. 패널조사 응답자의 약 34%가 선관위의 투표 관리 전반을 신뢰하지 않으며,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당일투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 및 이에 대한 해명 부족이 유권자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선관위가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기보다는 관리 강화와 충분한 해명 등 실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공공정책과 제도 및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분석·출판·교육에 헌신하고자 2002년 5월에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입니다. EAI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구, 국제 학술교류의 확대, 지식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정책이슈 분석 및 실천적인 접근법 제시 등을 통해 한국의 선도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 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의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 구본상**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 및 정치학 방법론이고, 북한을 포함한 현대 권위주의체제 비교연구, 의회정치,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 길정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대중 양극화이며, 주요 실적으로는 “민주적 원칙과 당파적 이익: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한국정당학회보』 2023년 제22권 제4호), “The Heterogeneous Impact of College Education on Happiness by Gender”(Social Science Quarterly 2024 105: 2) 등이 있다.
- 김수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영국 런던의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안보학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 전공 박사 과정 수료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비교정치, 정당과 의회 정치, 그리고 투표행태이다.
- 김준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스톤브룩 대학(Stony Broo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관심연구 분야는 연구 방법론과 의회정치이다. 주요 연구로는 “국회 내 정당간의 입법게임과 21대 국회의 전반기 분석(2022)”,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신임(2022)”, “Prior Margins of Victory and Legislative Careers(2018)” 등이 있다.
- 서현진** 1999년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이며 주로 선거, 정치과정, 정치교육이 관심 분야이다. 최근 연구로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 방향에 대한 탐색적 논의(『시민교육연구』 2023),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한국과 국제정치』 2019)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민주정치와 시민교육』(공저, 2022) 등이 있다.
- 성예진** 서강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세부전공은 정치제도, 대통령-의회 관계, 민주주의, 유권자 행태이며 한국 대통령의 명령권한(decree authority) 활용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최근 출판 논문으로 “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 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공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공저) 등이 있다.

-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미주리 주립대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와 한국정치를 중심으로 투표행태,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deology and Taxation on Welfare Vot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2016), “Do the Welfare Benefits Weaken the Economic Vot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9), “코로나19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정부대응 평가와 개인피해를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2020),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자산투표 vs. 회고투표”(『현대정치연구』 2022) 등이 있다.
- 유성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 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업적으로는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공저, 2017, 경희대학교출판부),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공저, 2018, 오름), “Two Types of Neutrality: Ambivalence vs. Indiffer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2010, *Journal of Politics*), “Can Independents Save the Democracy in the Era of Polarization” (2022, *Issues and Studies*),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안과 참여의 활성화” (2017, 한국과 국제정치),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용: 사회안전과 개인적 정향, 그리고 민주주의” (2019, 『분쟁해결연구』) 등이 있다.
- 유재성** 계명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전공 분야는 정당과 선거, 미국정치, 정치심리학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다운즈(Downs)의 P에 관한 분석적 시론: ‘성공의 전망’과 ‘실패의 기억’”(2021), “분할투표의 유형 및 동기: 20대 총선 분석”(2020), “투표자 유형 및 특성: 정당투표자, 정당 간 투표자, 간헐적 투표자, 습관적 투표불참자”(2020), “프레임িং은 이념 성향을 어떻게 활성화 혹은 억제하는가?”(2019) 등이 있다.
- 이한수** 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발표한 주요 논문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변화에 대한 거시적 탐구.” 『한국정치학회보』 57권 3호(2023), “북한 위협과 대통령 지지도의 선택적 결집.” 『한국정치학회보』 57권 3호(2023),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분열쟁점과 쟁점투표.” 『의정연구』 28권 2호(2022) 등이 있다.
- 정연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미국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의 정치 제도 및 이민, 인구정책이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서 Korean Politics and Economy,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수업을 강의하였다. 최근 *Journal of Law and Courts*, 『현대정치연구』 등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책을 펴내며 _ 6

제1부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1장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평가 _ 14

강원택 | 서울대학교

2장 여당은 왜 완패했는가? 투표와 기권의 동기 _ 42

유재성 | 계명대학교

3장 양극화 시대 상층적 유권자의 선택: 정권견제론 vs. 정권안정론 _ 56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4장 대통령-여당 호감도 격차와 중간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상층적 태도에 따른 감정적 반응과 투표 결정 _ 88

성예진 | 성균관대학교

제2부 투표행태: 젠더, 자산, 이념

5장 20대 이하 유권자 투표행태에서 드러난 현대적 성차(modern gender gap) _ 122

구본상 | 충북대학교

6장 2024년 총선에서의 자산 투표: 수도권 유권자를 중심으로 _ 154

김수인 | 서울대학교

7장 이탈인가 향의인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투표 결정 요인 _ 174

정연경 | 서울대학교

8장 누가 분할투표를 하는가? 정치지식과 이념 인식에 따른 정당 지지의 영향력 _ 200

이한수 | 아주대학교

제3부 선거 과정

9장 주요 정당의 공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 _ 234

서현진 | 성신여자대학교

10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들의 대표 정치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_ 270

길정아 | 고려대학교

11장 유권자의 지역구 의원 평가와 투표 선택 _ 318

신정섭 | 숭실대학교

12장 사전투표, 당일 투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_ 338

김준석 | 동국대학교

부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패널 조사 주요 결과 _ 363

집필진 약력 _ 372